

중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시사점: 청년층과 비교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허윤 (한양사이버대학원 IT MBA 과정)*

국문 요약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실업률을 낮추는 기능에 관심을 두고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늘리고 있다. 학계 연구도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창업자 수는 중년이 더 많다. 고령화로 중년 창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조사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화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보다 심리적 요인들에서 나타났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기업가적 태도, 자기 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가 있다. 창업에 있어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고 요약하고 중년을 포괄하는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중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 수립과 나이 제한 창업지원 폐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지각된 사회적지지 제고를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장년창업, 자영업,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의도, 창업의지, 창업지원정책

I. 서론

1.1. 연구배경

창업은 혁신을 자극하고 기술 경쟁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성장과 국가의 번영을 이끈다(Holmgren & From, 2005). 정책 입안자는 고용과 실업 문제에 대한 치료제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이상아·이승윤, 2018). 그러나 실제 창업자는 2~30대보다 4~50대가 더 많다(통계청, 2024a).

중년 창업이 많은 이유는 인구구조와 높은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의 중위연령은 2004년 34.1세에서 2024년 46.1세로 12세 높아졌다(통계청, 2024b). 중년은 연장자라는 이유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실직한 중년은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임금부담, 연령제한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윤미·김형빈, 2022). 청년과 마찬가지로 중년에게도 창업은 선택 가능한 경력에 하나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들은 청년 창업을 우대하고 있으며(중소벤처기업부, 2024a), 상대적으로 중년 창업을 소외시키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중년 창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지만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선행연구들은 누가 창업을 할지 예측하는데,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EI)가 중요하다고 제시한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잠재적 기업가가 비즈니스를 구상하

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한다. 창업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창업의지 형성이 선행하며(Ajzen, 2001), 의지가 강할수록 실제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이다(Krueger et al., 2000).

Ajzen et al.(2004)은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를 제시하였다. (i) 주관적 규범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영향력이 큰 주변 사람들이 기업가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ii) 행동에 대한 태도는 창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평가이다. (iii) 지각된 행동 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감을 말한다.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는 내면의 심리적 요인이다(이학식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들에 더해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까지 총 10개의 요인이 청년층과 중년층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층과 중년층을 구별하는 요인 중요도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 주저자, 한양사이버대학원 IT MBA 과정, yoon.her1212@gmail.com

· 투고일: 2024-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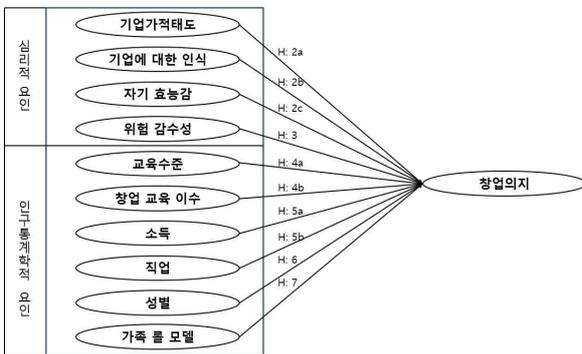
· 1차 수정일: 2024-10-11

· 2차 수정일: 2024-10-16

· 게재확정일: 2024-10-17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들은 창업의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실증하였지만 대부분 청년층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중년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OECD, 2022),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이 창업한다. 그런데도 창업지원 정책과 학술 연구는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하고 연구 표본은 주로 대학생이다.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관점에서 창업 정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밑바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중년층과 청년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연구 주목적은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과 가설

2.1. 이론

2.1.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현대적 개념은 19세기에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제시하였으나 하나의 정의가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다르게 정의한다(Landström et al., 2012). Hil et al.(2024)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동수·구언희(2007)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특정 짓는 용어로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이지만 대부분 창업과 동의어로 쓰인다(Muithi, 2018).

2.1.2. 창업

창업은 한 번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며 일련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가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팀을 구성하고, 고객을 발굴하고, 경쟁해야 한다. Kumbhat & Sushil(2018)은 창업 프로세스를 4 단계로 모델화하였다.

1단계는 정보를 탐색하며 기회를 인지하고, 2단계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3단계는 회사를 설립해서 초기 운영을 하고, 4단계에는 성장으로 성과를 내는 활동을 한다. 3~4단계가 실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이지만, 그 전에 자기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단계도 중요하다(Krueger, 1993).

2.1.3. 기업가

기업가(entrepreneur)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이익과 리스크에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기업가는 자영업자, 컨설턴트, 소상공인이라 말과 혼용되어 쓰인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는 임금근로자와 대비하여 모든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구분한다(통계청, 2024b).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약 78%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통계청, 2024c).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구분 없이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은 자영업자라고 한다(Blanchflower, 2004). 본 연구에서는 고용 인원 또는 기업형태에 상관없이 창업한 모든 자영업자를 기업가라고 정의한다.

2.1.4. 중년의 개념과 특징

중년 또는 중장년의 정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통계청(2024b)은 중년의 범위를 만 40~64세로 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39세 이하이고, 중장년기출창업센터의 사업 대상은 만 40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b).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청년은 만 20~39세, 중년은 만 40~59세로 정의한다.

청년과 노년은 경제적, 사회적 취약층이 많아서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중년의 이론은 퇴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신중년이란 용어가 생기는 등 중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중년은 사회적 역할 변화와 신체적 변화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중년기에 발생하는 조기퇴직은 가치관 상실과 우울증을 유발하여 중년의 위기로 이어진다(이성균,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에게 노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정성지·박보람, 2020). 중년은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되고 있다(이환웅·고창수, 2023). 다시 말해 중년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계층과 질 낮은 일자리에 있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층으로 양분된다.

중년 창업은 독립적으로 더 큰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모험일 수도 있지만, 주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어려워져 일수도 있다.

2.1.5. 밀어내기/끌어당기기 이론

Weber & Schaper(2004)는 노년층의 창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밀어내기(Push)/끌어당기기(Pull) 개념을 제시하였다. 밀어내기는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고, 끌어당기기는 ‘돈을 더 벌고 싶다’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을 말한다. Yimamu(2018)는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끌어당기기 요인은 (i) 성취를 추구하거나, (ii)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iii) 위대한 일을 하려는 지속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는 창업이다. 밀어내기 요인은 (i) 실업 상태에 있거나, (ii) 적은 숙련도와 자원만 있어도 경쟁할 수 있는 창업 기회가 있거나, (iii) 교육 부족, 언어 장벽, 범계 경력 등으로 인해 직업을 구할 수 없을 때 생존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Weller et al.(2017)은 노년층에서 밀어내기보다 끌어당기기에 의한 창업이 더 많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밀어내기/끌어당기기 개념을 토대로 중년층의 높은 창업률이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일 가능성에 유념하여 분석한다.

2.2. 연구가설

2.2.1. 연령

선행연구들은 중년층보다 청년층의 창업 활동이 많음을 보여준다. Curran & Blackburn's(2001)은 50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Hart et al.(2004)은 50~64세의 창업 활동이 20~49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국내 통계청(2024a)에 따르면 창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미만 13.6%, 30대 26.1%, 40대 26%, 50대 20.4%, 60세 이상 13.6%로 창업률은 연령대에 따라 ‘역 U자’ 모양을 띤다. 전체 표본 11,985명의 연령대별 창업의지의 정도를 확인한다.

가설 1a: 연령대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b: 연령대에 따라 창업의지는 ‘역 U자’를 띤다.

이하 각 요인은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만 20~39세) 516명과 중년층(만 40~59세) 499명만을 비교해 분석한다.

2.2.2.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는 창업 계획과 창업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재혁 외, 2022).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김용태, 2017). 태도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마음가짐, 가치, 믿음이 종합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평가이다. 기업가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업 기회를 잘 인지하고 기업가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와 창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기업가적 태도 점수가 높다.

가설 2a: 청년층과 중년층의 기업가적 태도는 차이가 있다.

2.2.3. 기업에 대한 인식

Krueger & Brazeal(1994)은 "기업가적 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사회문화적 맥락에 깊이 내재 되어 있다"라고 썼다.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상공회의소(2024)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지 정도에 대한 평가로서, ‘기업호감지수’를 조사하여 55.9점이라고 밝혔다. 50점이 기준점이며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Aguilera et al.(200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개인, 그룹, 조직, 사회에 걸쳐 이익이 되며 조직의 리더는 CSR을 우선순위로 윤리 경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경영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가설 2b: 청년층과 중년층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2.2.4.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반두라(Bandura)의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ve)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이임정, 2009), 개인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역량을 자신이 스스로 보는 자기 인식의 방식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 효능감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에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Zhao & Seibert, 2010; Caliendo et al., 2023). Zhao & Seibert(2010)는 기업가정신의 맥락에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 학습, 기업가적 경험, 위험 감수성을 제시하고,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했다.

가설 2c: 청년층과 중년층의 자기 효능감은 차이가 있다.

2.2.5. 위험 감수성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위험 감수성이 빠지지 않는다. 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위험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객관적으로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덜 위험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Zhao & Seibert, 2010; Sitkin & Weingart, 1995 재인용). 많은 연구자가 위험 감수성과 창업의지의 직접 연관성을 제안한다.

가설 3: 청년층과 중년층의 위험 감수성은 차이가 있다.

2.2.6. 교육수준과 창업교육

교육수준과 소득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Osiobe 2019; Becker, 2009 재인용). 교육은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창업 역량과 관련 있다. Bates(1990)는 대학 학위를 가진 기업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가에 비해 실패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은 사실을 밝혔다. 대학 학위를 가진 기업가는 공식적인 기관의 대출에 접근하기 더 쉽다. 정규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높은 교육수준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올라가듯이, 높은 교육수준이 창업 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적 자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1940년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Katz, 2003).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창업지원 기관과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기를 방안이다. 창업지원 기관들은 창업교육 이수율 필수요건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는 대개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가설 4a: 청년층과 중년층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4b: 청년층과 중년층의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차이가 있다.

2.2.7. 소득과 직업

기업가는 사업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계속 획득해야 한다. 창업에 필요한 자원은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적자원이 있다. 창업진흥원(2023)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가의 71%가 창업준비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자금확보를 꼽았다. 자금확보 방법은 복수이며 94%가 자기자금을 투입하였다. 자기자금 외에는 은행(비은행) 대출, 개인간 차용, 정부 융자, 정부출연금 & 보조금, 주식 & 회사채발행, 엔젤 & 벤처캐피탈 투자 순이다. 소득이 높으면 창업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소득과 직업은 높은 관계가 있다. Inkson & Arthur(2001)는 경력을 직업상 해운 일 또는 경험이라고 정의하며 지식의 축적으로 보았다. 경력은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원천이다.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직업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중년층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더 풍부하다. 직업 경력으로 축적된 지식은 조직을 바꾸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에 도움이 된다.

가설 5a: 청년층과 중년층의 소득에 차이가 있다.

가설 5b: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업에 차이가 있다.

2.2.8. 성별

기업가는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남성적 특질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창업진흥원, 2023)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62:37로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의 두 배에 달한다.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직업이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개인이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여성 창업을 우대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창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은 남성이 우세하다(OECD, 2024). 황주경·강순희(2021)는 중년층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크며, 여성 고학력자일수록 재취업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중년 여성은 경력 단절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설 6: 청년층 여성과 중년층 여성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

2.4.9. 가족 롤 모델

부모가 자영업자이면 자녀도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Marinakou, 2014). Zellweger et al.(2011)은 창업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개인은 창업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경력 선택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롤 모델(role model)은 특정한 능력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말한다. 사람들은 롤 모델의 성격, 행동, 목표를 모방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Gibson, 2004),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Krueger et al.(2000)은 롤 모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사례는 잠재적 창업자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고 창업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Nauta & Kokaly(2001)는 롤 모델이 역할 모델과 동기부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조언을 해준다고 하였다. Niels et al.(2011)은 롤 모델의 기능으로 (i) 열망과 동기부여, (ii) 자기효능감 증대, (iii) 사례를 통한 학습, (iv) 조언과 같은 지원에 의한 학습을 제시하였다. 그중 사례를 통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 초기 단계에는 81%가 롤 모델이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 중의 창업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의 롤 모델이었다.

가설 7: 청년층과 중년층은 가족 롤 모델 유무에 차이가 있다.

III. 연구 방법

3.1. 데이터 출처와 표본 개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집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개인편)’ 설문 결과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연구 또는 교육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통계자료이다. 조사 주기는 3년이며 가장 최근에 수집된 2022년 자료를 사용한다.

표본 추출법은 층화확률비례계통이다. 17개 지역에서 계급근비례분방법(지역)과 비례분방법(조사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3세 이상 ~ 만 69세까지이다. 총 표본 수는 11,958명으로 대표성이 있을 만큼 표본 크기가 충분하다 (가구원 기준 상대표준오차 0.55%). 설문은 총 82문항이며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에 대한 인식’과 개별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이용한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명목척도이다. 기업가정신을 묻는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서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각 컨스트럭트(construct)는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기업가적 역량’ 12개 문항은 .91, ‘기업가적 태도’ 7개 문항은 .88, ‘기업에 대한 인식’ 3개 문항은 .86이 도출되었다. 크론바흐 알파 값의 수용 가능 수준은 .75~ .95의 범위이므로(Tavakol & Dennick, 2011), 내적일관성은 양호하다. 내적일관성이 있는 설문 응답은 전부 합치거나, 가중치를 두거나,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컨스트럭트 값을 모두 합하고, 서로 다른 척도가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하여 이용한다. 예컨대 한 응답자의 기업가적 역량 12개 응답을 전부 합하면 12점에서 84점 사이에 하나의 비율척도 요인이 된다.

3.2. 청년층과 중년층의 구분

만 20세 ~ 만 39세를 청년층으로, 만 40세 ~ 만 59세를 중년으로 구분한다. 생애주기에서 39세와 40세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40세와 59세를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그런데도 각종 창업 정책은 39세를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청년과 중년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3.3. 데이터 분석 도구

분석 도구로 파이썬 버전 3.10.4를 사용한다. 데이터 전처리와 기초 통계량을 위해 pandas와 numpy를 쓰고, 통계 분석 패키지는 scipy와 pingouin을 사용한다. 이진 분류 모델 생성과 성능 분석을 위해 sklearn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matplotlib과 seaborn을 사용한다.

가설검정을 위해 요인이 연속형이면 t검정을 하고 범주형이면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 시각화를 통하여 탐색적 분석을 한다.

청년층과 중년층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요인과 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classifier)로 모델을 만든다. 랜덤포레스트는 트리(의사결정나무) 계열의 알고리즘으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Yadav, 2024). 첫째, 비선형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변수의 중요도를 판별하는데 선형회귀보다 더 안정적이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학적 가정이 불필요하고, 예측 요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랜덤포레스트의 단점은 컴퓨터의 연산력이 많이 필요하다. 과대적합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중 80%는 학습용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나머지 20%는 테스트용으로 남겨두었다가 성능(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한다(윌러·가이도, 2022). 또한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으로 분류 모델을 생성하여 랜덤포레스트와 성능을 비교한다.

IV. 분석 결과

<표 1>은 전체 표본 11,985개의 기술통계이다.

<표 1> 표본 기술통계

Description	평균	SD	빈도	%	Description	평균	SD	빈도	%
연령대	-	-			직업별	-	-		
10			877	7%	관리자			114	1%
20			1207	10%	전문가 및 관련			342	3%
30			2329	19%	사무			2285	19%
40			2109	18%	서비스			1887	16%
50			2641	22%	판매			1632	14%
60			2795	23%	농림어업 관련			510	4%
성별	-	-			기능원 및 관련			864	7%
남성			5736	4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410	3%
여성			6222	52%	단순노무 종사자			568	5%
학력별	-	-			학생			1303	11%
받지않았음			10	0%	주부			1572	13%
초등학교			186	2%	취업준비자			114	1%
중학교			1243	10%	은퇴자			329	3%
고등학교			5110	43%	기타			28	0%
대학교 (2,3년제)			2092	18%	기업가적 역량			-	-
대학교 (4년제)			3216	27%	(12-84점)	51.99	10.03		

대학원 석사	92	1%	기업가적 태도	-	-
대학원 박사	9	0%	(6-42점)	28.41	7.05
소득별	-	-	기업에 대한 인식	-	-
100만원미만	3217	26%	(3-21점)	13.22	3.98
100-300만원	5106	43%			
300-500만원	3210	27%	창업의지 있음		
500-700만원	413	4%	청년 2030 (총3536명)	516	15%
700만원이상	102	1%	중년4050 (총4750명)	499	11%
전체표본수: 11,985, SD: Standard Deviation					

<표 2>는 전체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이다. 유의 수준 .01에서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2> 연구가설 검정 결과

가설(요인)	청년층				중년층				t값	x2값	p값	검정 결과
	Mean	SD	빈도	%	Mean	SD	빈도	%				
1a (연령대)	-	-	-	-	-	-	-	-	-	264.59	0.000	채택
1b (역U자)	-	-	-	-	-	-	-	-	-	-	0.000	채택
2a (기업가적 태도)	34.55	6.11	-	-	32.8	6.20	-	-	4.51	-	0.000	채택
2b (기업에 대한 인식)	13.96	4.24	-	-	13.37	3.95	-	-	2.29	-	0.022	기각
2c (자기 효능감)	59.01	8.47	-	-	56.81	8.73	-	-	4.08	-	0.000	채택
3 (위험 감수성)	4.78	1.35	-	-	4.64	1.38	-	-	1.65	-	0.099	기각
4a (교육 수준)	-	-	516	-	-	-	499	-	-	99.53	0.000	채택
4b (창업 교육이수)	-	-	160/365	30%	-	-	179/320	36%	-	2.48	0.115	기각
5a (소득)	2.29	0.76	-	-	2.58	0.82	-	-	-	-	0.000	채택
5b (직업)	-	-	516	-	-	-	499	-	-	64.03	0.000	채택
6 (성별 여/남)	-	-	218/298	42%	-	-	182/317	36%	-	3.31	0.069	기각
7 (가족 모델)	-	-	134/382	26%	-	-	101/398	20%	-	4.36	0.037	기각
청년(20-39세) 표본수: 516, 중년(40-59)표본수: 499, 유의수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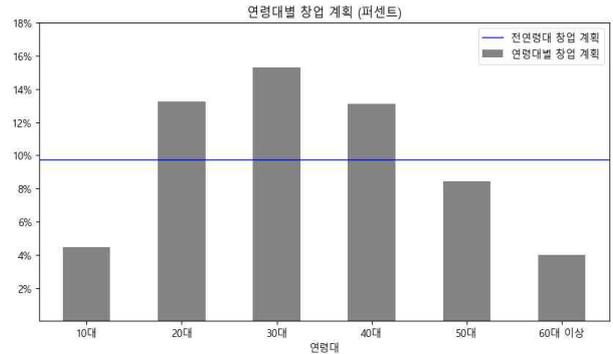
<표 3>은 연령대별 창업의지 비율이며 30대가 가장 높다.

<표 3> 연령대별 창업의지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창업의지 없음	838	1047	1973	1833	2418	2684
창업의지 있음	39	160	356	276	223	111
없음/있음 비율 %	4.45%	13.26%	15.29%	13.09%	8.44%	3.97%
전체표본수(11,985)의 창업의지 비율(%): 9.74%						

<표 4>는 <표 3>을 막대그래프(bar graph)로 시각화한 것이다. 연령대별 창업의지는 '역 U자' 모양을 띠고 있다.

<표 4> 연령대별 기업가적 의도 '역 U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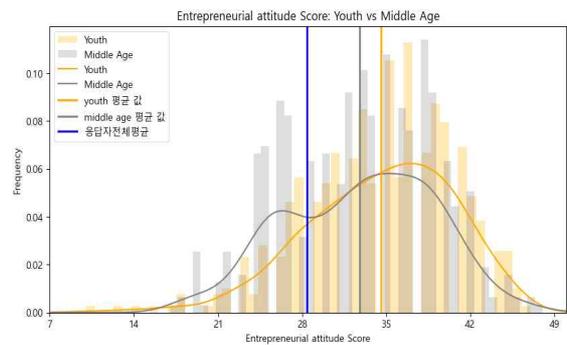


이하는 채택된 7개 가설을 시각화로 분석한다. 그래프에서 청년은 오렌지색이며, 중년은 회색이다. 비교를 위하여 전체 평균(11,985개)을 추가한 경우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3.1.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태도는 전체 평균이 28.20 (SD: 7.05), 청년층 평균은 34.55 (SD: 6.11), 중년층 평균은 32.8 (SD: 6.20)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의 시각화된 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에 반해 중년층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평균보다 낮은 응답자도 많다. 창업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태도가 낮은 것은 밀어내기 창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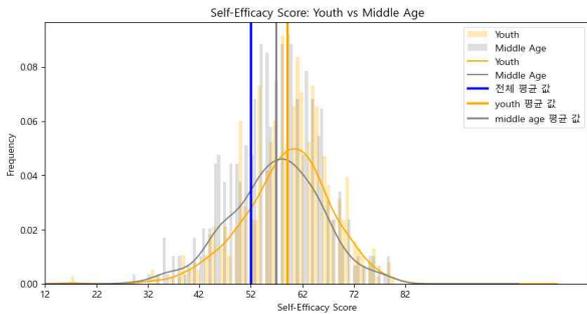
<표 5> 기업가적 태도 차이 분포



3.2. 자기효능감

통계자료는 본래 ‘기업가적 역량’으로 설문하였으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주관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으로 간주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청년층 평균이 59.01 (SD: 8.47)이며 중년층 평균은 56.81 (SD: 8.37)이다. <표 6>을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높다. 기업가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창업계획이 있는 중년층 중에는 전체 평균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많으며, 이들은 밀어내기 창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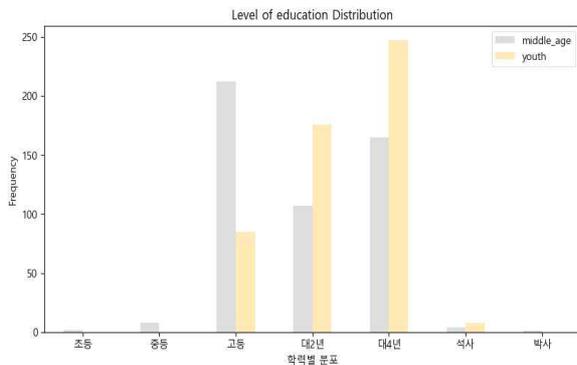
<표 6> 자기 효능감 차이 분포



3.3. 교육수준

<표 7>을 보면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교육수준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층의 교육수준 분포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이 더 많이 창업한다던가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중년층이 더 많이 창업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표 7> 교육수준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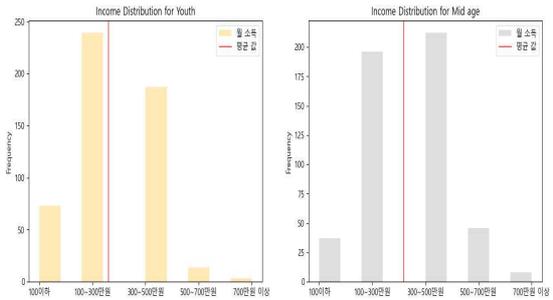


3.4. 소득과 직업

5개 소득 구간을 등간척도로 간주하였고, 전체 평균은 2.37 (SD: 0.84), 청년층 평균은 2.16 (SD: 0.78), 중년층 평균은 2.36 (SD: 0.86)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 평균은 2.29 (SD: 0.76), 중년층 평균은 2.58 (SD: 0.8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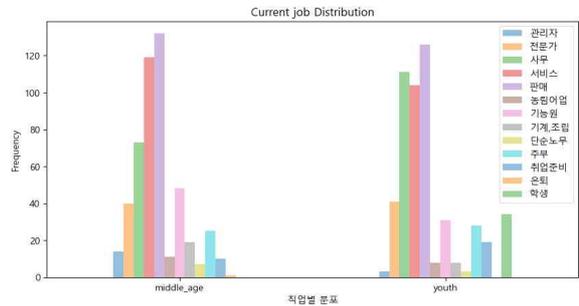
<표 8>을 보면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고,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은 각 층의 평균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8> 소득 차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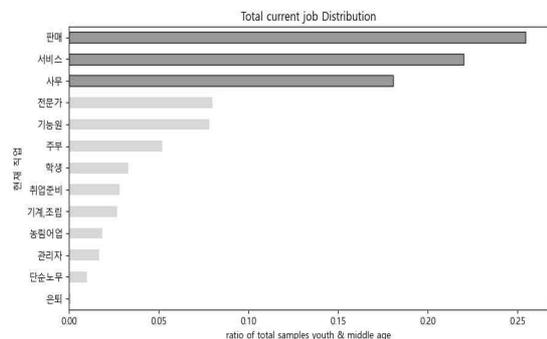
<표 9>는 직업 분포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업군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청년층은 학생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

<표 9> 직업 차이 분포



추가로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을 통합하여 1,015 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10>을 보면 현재 직업은 1) 판매 2) 서비스 3) 사무 순이다. 전체 표본(11,985명)의 가장 많은 직업은 1) 사무 2) 서비스 3) 판매 순이므로 현재 직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판매직은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표적 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고 창업 시 고객 확보를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창업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 10> 창업의지가 있는 표본의 직업 분포



3.5. 요인 중요도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과 중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이진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가설 2a에서 가설 7까지 10개의 요인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 청년과 중년을 결과 변수로 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전체 데이터 중 80%는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20%는 남겨두었다가 성능(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11>은 테스트용 데이터만을 이용한 모델의 성능이다. 예측 정확도는 69%이며 f1-score는 중년 .66, 청년 .71이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일한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으나, 정확도는 62%이며 f1-score는 중년 .63, 청년 .63으로 랜덤포레스트 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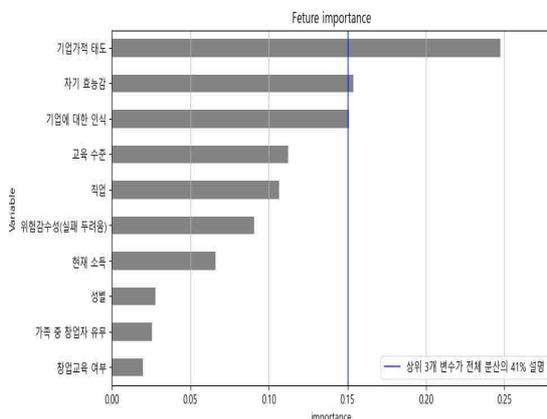
<표 11> 랜덤포레스트 모델 성능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중년	0.62	0.7	0.66	111
청년	0.74	0.67	0.71	143
accuracy			0.69	254
macro avg	0.68	0.69	0.68	254
weighted avg	0.69	0.69	0.69	254

<표 12>는 독립 변수들의 특성 중요도로서 청년층과 중년층을 구별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특성 중요도는 선형 모델의 계수와 달리 절댓값이며 항상 양수이다. 어떤 특성이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랜덤포레스트는 독립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기능이 있으며 어떤 특성이 낮게 나왔더라도 다른 특성이 동일한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필러·가이드, 2022).

데이터를 부트스트랩(bootstrap)해서 많은 모델을 생성하고, 그 집합에서 하나의 예측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인다(브루스 외, 2022).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가 사소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중요도의 순위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12> 특성 중요도



청년과 중년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도는 ‘기업가적 태도’, ‘자기 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 순이다. 각 요인의 개별 검정에서 보았듯이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기업가적 태도’와 ‘자기 효능감’이 더 크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표 12>에서 보듯이 p값(p-value)이 .022로 유의수준 .01에서 기각되었지만, 세 번째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시 살펴본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전체 표본(11,985개) 평균은 13.22 (SD: 3.98), 청년층 평균은 13.96 (SD: 4.24), 중년층 평균은 13.37 (SD: 3.95)이다.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며,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더 부정적이다. 선행연구들은 창업 동기 중 하나로 일에 대한 불만족과 더 나은 회사를 만들려는 열망을 꼽는다(Murnicks et al., 2020, Shane et al., 2003).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창업하는 것이다. 창업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서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질적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

‘직업’은 청년층에 학생이 많고, ‘교육수준’은 청년층이 더 높다. ‘성별’은 남성 창업자가 여성 창업자의 두 배 수준으로 창업의지와 뚜렷한 관계가 있지만, 청년층 성비와 중년층 성비는 달라지지 않는다. ‘위험감수성’, ‘소득’, ‘가족 물 모델’, ‘창업교육 이수 여부’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큰 차이는 없다. 개별 요인 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차이점은 교육수준, 직업,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 기업가적 태도, 자기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은 전부 청년층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

V. 결론과 시사점

5.1. 결과 요약과 고찰

전체 표본 11,985개에서 창업의지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꺾이는 ‘역 U자’ 모양임을 확인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10개 요인을 검정하였다. ‘성별’, ‘가족 물 모델’, ‘창업교육 이수 여부’, ‘위험 감수성’은 청년층과 중년층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직업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평균 소득이 높으며 중년층이 창업자금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은 중년층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 교육수준은 창업 성공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Bates, 1990). 중년층이 소득과 직업적 경력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청년층은 한 단계 높은 교육수준으로 상대적 약점을 상쇄할 수 있다. 직업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청년층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을 제외하면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판매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절반에 이른다.

10개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청년층과 중년층을 구별하는 주요 요인은 ‘기업가적 태도’, ‘자기효능감’, ‘기업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인식의 경우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높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가능성이 수 있으며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층이 자기효능감도 더 높다. 반두라(Bandura, 1999)는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업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거절당하고, 시장 조건이 나쁘고, 정부의 기업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Saraih et al., 2018).

기업가적 태도도 청년층이 더 높다.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말하며 창업과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이상 세 가지 요인은 믿음, 감정, 생각과 같은 내면의 심리적 요인이다. 연구자는 창업의지가 있는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낮다고 제안한다.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한다면 밀어내기 가설이 지지된다. 더 큰 기회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한오셉(2024)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40대 후반에 주된 직장을 나오며 중년은 기대치를 낮추어도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였다.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창업지원 정책도 중년을 소외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출, 세제 감면, 자금지원과 같은 혜택을 청년층에게만 부여하는 정책들이 늘면서 중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사회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산이나 집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통념은 나이가 많다고 자각한 사람들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Weber & Schaper, 2004). ‘문과를 나오던 이과를 나오던 결론은 치킨집 사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며 창업자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청년 지원에 집중하며 절대적 창업자 수가 더 많은 중년을 소외시키는 정책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5.2. 정책적 시사점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창업이란 모험을 하라고 장려한다. 창업 정책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정책과’를 운영하고, 지자체들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이상 아·이승윤, 2018),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늘고 있다(중소벤처

기업부, 2024b). 최세경 외(2017)는 창업지원 정책 방향성을 ‘혁신창업지원’과 ‘청년지원’으로 구분하고 ‘혁신기반의 청년 창업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혁신창업은 청년층에 적합하다는 인식도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현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성공 창업 모델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에 뛰어들어 혁신과 성공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Azoulay et al.(2020)은 빠르게 성장하는 1,700개 창업 기업의 창업자 평균연령은 45세이며 중년층의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음을 실증하였다.

창업의지가 있는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자신감이 낮으며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중년 창업을 지지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와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가능한 정책 목표는 중년이 창업을 긍정적인 경력 선택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밀어내기 창업도 개인에게는 생계를 이어 나가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실업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줄인다. 비자발적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Kautonen, 2010).

지원 방안으로 첫째, 창업지원 정책에서 나이 제한을 없앨 수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은 아니며 중년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이나 창업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경제적 취약층의 창업지원이 목표라면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면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선별하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 39세는 임의적이다.

둘째, 중년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태도, 마음가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를 높인다(공혜원, 2018; Soomro et al., 2020). 대학과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교육들은 단순 지식 전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윤방섭, 2004). 가르치기 쉬운 하드 스킬(hard skills) 중심이다. 예컨대 인사, 세무, 창업 법률, 온라인판매법, 창업지원정책 활용 등을 가르친다.

Sadq(2019)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중년 창업의 성공 사례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높이고,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를 실습하고, 같은 중년 창업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를 높이는 홍보 사업이 필요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기 효능감과 기업가적 태도 지향성을 높인다(Haber et al., 2007; Lestari et al., 2022).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Muhammed et al., 2020). 경력과 노하우가 많다는 이점을 활용한 중년 창업을 장려하는 홍보를 늘릴 수 있다.

중년 창업을 긍정적인 경력 선택의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 수립과 나이 제한 창업지원 기준 폐지, 중년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높이는 홍보 사업으로 중년을 포괄하는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5.3. 의의와 한계점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층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탐색적 비교분석으로 중년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계점은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요인을 탐색하였다. 창업의지 형성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이며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중년 창업자가 많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로 각 요인을 심도 깊게 조사할 수 있다. 둘째, 단일시점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 응답과 다른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행동에 선행한다(Ajzen et al, 2004). 그러나 기업가적 태도와 자아 효능감은 심리적 요인으로 시간에 따라 바뀌며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바꾼다. 동일한 표본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한다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요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69%로 양호하나, 주요 요인이 추가되거나 누락되면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진다. 연구자는 정부지원자금이나 정책적 배려와 같은 ‘창업생태계’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지만, 수집된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주요 요인을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REFERENCE

공혜원(2018).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3(6), 129-141.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윌러·가이도(2022).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박해선 (역). 서울시: 한빛미디어. 103-131.

박동수·구연희(2007).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979-3011.

브루스·브루스·게테크(2022). *데이터 과학을 위한 통계*. 이준용(역). 서울시: 한빛미디어. 295-305.

상공회의소(2024). *기업호감도 2년 연속 국민들에 ‘공감’ 평가*.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Kc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8116&CHAM_CD=B001.

윤미·김형빈(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 53-87.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 경영연구*, 17(2), 89-110.

이상아·이승윤(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노동정책연구*, 18(2), 27-59.

이성균(2008).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2), 181-216.

이임정(2009). 자기효능감의 이해를 통한 인간의 욕구와 행동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55, 221-247.

이재혁·신성혜·차혜원·이민섭(2022). *2022 기업가정신 통계조사 기술통계*. 서울시: 한국청년기업정신재단.

이학식·안광호·하영원·석관호(2020). *소비자행동 제7판*. 서울시: 집현재. 213-286.

이환용·고창수(2023).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일자리 재정 정책에의 함의. *재정포럼*, 324, 70-77.

정성지·박보람(2020).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중장년의 경력전환 연구 동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101-124.

중소벤처기업부(2024a). *청년창업의 선두주자, 중소벤처기업부*.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56578558&catelId=PRESS§Id=PRESS&tblKey=GMN#estNews>.

중소벤처기업부(2024b).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6793>.

창업진흥원(2023). *창업기업실태조사*.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3451&tag=&nPage=1.

통계청(2024a). *창업자연령*.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17N_202&vw_cd=MT_ZTITLE&list_id=J2_22_01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통계청(2024b). *생애계층별 사회통계(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r_cd=S004008.

통계청(2024c). *자영업자 현황*.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최세경·곽규태·김경민(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 제고 방안 연구(기본연구 17-11)*. 서울시: 중소기업연구원.

한요셉(202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KDI Focus*, 2024 Vol. 131.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97

황주경·강순희(2021).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1(1), 115-134.

Aguilera, R. V., Rupp, D. E., Williams, C. A., & Ganapathi, J.(2007). Putting the S back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multilevel theory of social change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836-863.

Ajzen, I.(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27-58.

Ajzen, I., Brown, T. C., & Carvajal, F.(2004). Explaining the discrepancy between intentions and actions: The case of hypothetical bias in contingent 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9), 1108-1121.

- Azoulay, P., Jones, B. F., Kim, J. D., & Miranda, J.(2020). Age and high-growth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2(1), 65-82.
- Bandura, A.(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Handbook of personality*, 2(1), 154-196.
- Bates, T.(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4), 551-559.
- Blanchflower, D. G.(2004). Self-employment: More may not be better.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11*, 2 (Fall 2004): 15-74. Massachuset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aliendo, M., Kritikos, A. S., Rodriguez, D., & Stier, C.(2023).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start-ups. *Small Business Economics*, 61(3), 1027-1051.
- Curran, J. & Blackburn, R. A.(2001). *Researching the Small Enterpris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55-70.
- Gibson, D. E.(2004). Role models in caree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34-156.
- Hil, S., Ionescu-Somers, A., Coduras, A., Guerrero, M., Menipaz, E., Boutaleb, Zbierowski, P., Sahasranamam, Sreevas. & Shay, J.(2024). *GEM 2023/2024 GLOBAL REPORT-25 YEARS AND GROWING*. London: the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Business School.
- Haber, M. G., Cohen, J. L., Lucas, T., & Baltes, B. B.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33-144.
- Hart, D., Atkins, R., Markey, P., & Youniss, J.(2004). Youth bulges in communities: The effects of age structure on adolescent civic knowledge and civic participation. *Psychological science*, 15(9), 591-597.
- Holmgren, C., & From, J.(2005). Taylorism of the Mi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m a Perspective of Educational Research.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 382-390.
- Inkson, K., & Arthur, M. B.(2001). How to be a successful career capitalist. *Organizational Dynamics*, 30(1), 48-61.
- Katz, J. A.(2003). The Chronology and Intellectual Trajectory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1876-1999.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283-300.
- Kautonen, T., Down, S., Welter, F., Vainio, P., Palmroos, J., Althoff, K., & Kolb, S.(2010). ‘Involuntary self-employment’ as a public policy issue: a cross-country European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112-129.
- Kumbhat, A., & Sushil.(2018). Development stages and scaling issues of startups. *Flexible strategies in VUCA markets*, 3-15.
-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andström, H., Harirchi, G., & Åström, F.(2012). Entrepreneurship: Exploring the knowledge base. *Research policy*, 41(7), 1154-1181.
- Lestari, E. D., Rizkalla, N., & Purnamaningsih, P.(2022). The effect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proactive personality in promoting studen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Indonesia.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Education*, 5(2), 169-197.
- Marinakou, E.(2014). The glass ceiling and women in management in the Middle East: Myth or reality?. *The Journal of American Business Review*, 3, 294-301.
- Muhammed, Y., Ringim, K. J., & Kura, K. M.(2020).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 Business*,8(1).
- Muithi, F. M.(2018).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family businesses in Ghana after the exit of first generation of founding family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Ashesi University.
- Murnieks, C. Y., Klotz, A. C., & Shepherd, D. A.(2020). Entrepreneurial motiv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1(2), 115-143.
- Nauta, M. M., & Kokaly, M. L.(2001). Assessing role model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nd vocational decis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1), 81-99.
- Niels, G., Jenkins, H., & Kavanagh, J.(2011). *Economics for competition lawyer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OECD(2024). *self-employment rate*. Retrieved 2024. 8. 10. from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self-employment-rate.html>.
- Osiobe, E. U.(2019). A literature review of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9(4), 179-196.
- Sadq, Z. M.(2019). The role of leadership soft skills in promoting the learn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process management and new technologies*, 7(1).
- Saraih, U. N., Aris, A. Z. Z., Mutalib, S. A., Ahmad, T. S. T., Abdullah, S., & Amlus, M. H.(2018).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engineering students*. In MATEC Web of Conferences (Vol. 150, p. 05051). Les Ulis: EDP Sciences.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oomro, B. A., & Shah, N.(202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a developing country: Strategic entrepreneurship as a mediator. *Business Strategy & Development*, 3(4), 567-577.
- Tavakol, M., & Dennick, R.(2011). Making sense of Cronbach's alpha.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 53.

- Weber, P., & Schaper, M.(2004). Understanding the grey entrepreneur.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2(02), 147-164.
- Weller, C. E., Wenger, J. B., Lichtenstein, B., & Arcand, C.(2018). Push or pull: Changes in the relative risk and growth of entrepreneurship among older households. *The Gerontologist*, 58(2), 308-319.
- Yadav, A.(2024). *Linear Regression and Random Forest*. Medium. <https://medium.com/@amit25173/linear-regression-vs-random-forest-7288522be3aa>
- Yimamu, N.(2018).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Doctoral thesis, Kokkola: Cen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usiness Management
- Zellweger, T., Sieger, P., & Halter, F.(2011).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Career choice intentions of students with family business backgroun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5), 521-536.
- Zhao, H., Seibert, S. E., & Lumpkin, G. T.(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Middle-aged Koreans and Implications: Exploratory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Young Koreans

Her, Yoon*

Abstract

Entrepreneurship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olicymakers are interested in the function of entrepreneurship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are increasing policies to support youth entrepreneurship. Most academic research also focuses on youth entrepreneurs. However, in reality, the number of entrepreneurs is higher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With the ageing population, middle-aged entrepreneurship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bu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middle-aged entrepreneurship. This study utilized quantitative data on entrepreneurship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using visualization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 and middle-aged individuals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s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in psychological factors than demographic factors. Middle-aged individuals had entrepreneurial intentions despite having a negative or low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elf-efficacy, and recognition of entrepreneurship. In summary, middle-aged individuals had lower confidence in entrepreneurship compared to young people. This study suggests developing entrepreneurship policies that are inclusive of middle-aged individuals, setting policy goals to promote a positive view of middle-aged entrepreneurship, and provid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bolishing age-based entrepreneurship support.

KeyWords: Middle-aged Entrepreneurs, Self-employment,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Policy

* First Author, IT MBA candidate, Hanyang Cyber university, yoon.her1212@gmail.com